

금융위원회	보도참고자료					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	배포	2017.7.3(월)	•튼튼한 금융
책 임 자	금융위 은행과장 김 진 홍(02-2100-2950)		담 당 자		송 현 지 사무관 (02-2100-2954)	

## 제 목 : 연합뉴스 7.3일 온라인 기사 「당국 "은행지점 10% 줄이면 감시 강화」제하 기사 관련

## < 기사 내용 >

- □ 연합뉴스는 同「당국 "은행지점 10% 줄이면 감시 강화··· 연장 영업 강구」제하 기사에서
- "정부가 점포를 10% 넘게 줄이는 은행에 대해선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.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은행들에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. (중략)"
- o 금융위는 총 점포의 10% 이상을 줄이는 등 대규모 통·폐합을 추진하는 은행은 고객이탈에 따른 유동성악화 가능성에 대비 해 건전성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"고 보도

## < 해명 내용 >

- □ 정부가 지난 6.29일 시행한 행정지도는 점포의 통·폐합시 ①대 고객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고, ②고객불편 최소화조치를 마련· 시행하며, ③경영안정성 관리를 강화하고, ④직원 재배치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환기한 것임
- 10%이상 점포 통·폐합시 감독 강화·연장영업 시행 등 **획일적** 기준과 적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, 또한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 드림

- □ 은행 점포 통·폐합 등 채널 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**원칙적으로** 은행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 사항으로 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할 사항은 아니며,
- 다만,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은행의 경영 안 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국이 필요한 모니터링을 시 행하겠다는 취지임
- □ 이와 관련하여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